

광주·전남 선수단 40여명 장애인아시아게임 출격

중국 항저우스타디움 열전 7일 돌입
한국 21개 종목에 345명 선수단 참가
광주, 탁구·양궁·사격 등 종목 강세
전남, 배드민턴·론볼 등서 메달 기대

제19회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에 40여명의 광주·전남 선수단이 국가대표로 출격했다.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가 지난 22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개회식을 열고 28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제19회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은 역대 최다인 45개국 3800여명의 선수단이 22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한국 대표팀은 21개 종목 345명의 선수단(선수 208명, 임원 137명)이 참가해 종합 4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탁구·양궁·사격·육상·보치아 등 9개 종목 20명(지도자 3명·보조선수 2명 포함)이, 전남에서는 배드민턴·론볼·사격·펜싱·양궁 등 8개 종목 20명(선수17명·임원 3명)이 참가해 종합 4위 수상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광주선수단은 탁구, 양궁, 사격 등에서 다수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도쿄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땀던 광주시청 소속 탁구선수 '간판' 김영건과 김정길은 예선 1차전에서 첫 경기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금메달을 향한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박진철과 서수연 등도 금빛 스매시를 향해 기량을 펼친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광주시청 장애인 양궁팀 정진영도 메달 사냥에 다시 나선다.

올해 광주시청 소속으로 아시안게임에 첫 출전하는 장애인사격팀 박승우도 메달에 도전한다.

2023년 파리 세계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6위인 정지송(광주 장애인육상연맹), 2022년 전국장애인체전 금메달리스트 김세정(광주장애인조정연맹), 2023 몬트리올 세계보치아컵 2위 강선희, 탁구 김성욱(광주시청), 양궁 김옥금(광주시청), 론볼 정재홍(광주장애인론볼연맹), 펜싱 최건우(광주장애인펜싱연맹), 배드민턴 이정수(광주장애인배드민턴연맹) 등이 지역과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

전남선수단은 배드민턴, 론볼 등에서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최고 유망주로 손꼽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배드민턴 팀 유수영이 남자 단식에서 정상을 노린다. 론볼에서는 송명준과 정상철이 각각 남자 단식과 복식에 출전해 메달 사냥을, 정겨울과 권현아(이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복식에 나서 메달에 도전한다.

사이클 박슬기(한전KDN), 볼링 이찬미(한전KPS), 신백호(포스코ICT), 당구 정선정(대신기공), 탁구 이창식(한전KDN), 김은희(전남장애인탁구협회), 육상 이미옥(한전KPS), 조경화(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격 이윤리(한국농어촌공사), 카누 남자KL1 김광현(전남장애인체육회) 등이 금메달을 노린다.



권기영이 23일 중국 항저우 후안롱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여자 F20 포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체 세부종목에서는 축구 뇌성마비가 4연패에, 여자 좌식배구와 골볼 남자는 지난해에 이어 2연패에 도전한다. 전년도 종합 1위를 차지한 카누, 배구팀은 올해 2연패 도전에 나선다. 축구, 골볼, 론볼 종목에서도 종합 1위를 버리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스마일 레이스' 전민재 은 한국 대표팀 첫 메달



'스마일 레이스' 전민재(사진·스포츠등급 T36·전라북도)가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 대표팀 첫 메달을 수확했다.

전민재는 23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육상 여자 T36 200m 결선에서 31초27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중국의 스이팅(28초17)에는 3초10 뒤졌다.

전민재의 은메달은 이번 대회 한국 대표팀의 첫 메달이다.

이날 5번 레인에서 경기를 시작한 전민재는 초반부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며 코너를 돌았다.

바짝 추격해온 8번 레인의 리쓰샹(중국)과 격차를 벌리며 앞서 나가는 듯 했던 전민재는 뒷심을 발휘한 3번 레인 스타팅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전민재는 장애인 육상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2008년 패럴림픽을 시작으로 국제무대에 나선 전민재는 2012 런던 패럴림픽 은메달 2개, 2016 리우 패럴림픽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매 대회 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0 광주 대회 100m와 200m에서 은메달 2개를 목에 건 전민재는 2014 인천 대회와 2018 인도네시아 대회에서 두 대회 연속 2관왕(100m, 200m)을 달성해 아시아 최강자로 군림했다.

한편 스이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세계 기록(28초21)을 0.04초 더 단축했다.

전민재가 2018년 인도네시아 대회에서 기록했던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기록(31초08) 역시 스이팅이 새로 썼다.

/연합뉴스



LIV골프 팀 챔피언십 우승 이끈 디샬보 브라이슨 디샬보(미국)가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LIV 골프팀 챔피언십 대회 18번 그린에서 퍼팅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크러셔스 팀 주장인 디샬보는 이날 5언더파 67타를 쳐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김건우·김길리 월드컵 1000m 동반우승 황대현은 실격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스포츠토토)와 김길리(성남시청)가 월드컵 1차 대회 1000m 2차 레이스에서 동반 우승했다.

김건우는 23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3-2024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000m 2차 레이스 결선에서 1분26초712의 기록으로 이탈리아의 루카 스페첸하우저(1분26초774)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건우의 우승 과정은 다소 아쉬웠다. 대표팀 동료 황대현(강원도청)의 무리한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결승엔 박지원(서울시청), 황대현, 김건우 등 총 3명의 한국 선수가 진출했다.

세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집안싸움을 펼쳤고, 지난해 세계랭킹 1위 박지원이 결승선을 반 바퀴 앞두고 1위로 달리며 우승하는 듯했다.

이때 4위로 처져있던 황대현이 인코스를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왔다. 황대현은 김건우 등을 제치며 2위로 올라선 뒤 1위로 달리던 박지원을 뒤에서 밀쳤다.

박지원은 결승선을 코 앞에 두고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뒤에서 달리던 김건우가 어부지리로 우승했다.

심판진은 황대현이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심한 반칙을 했다고 판단해 페널티 대신 옐로카드(YC)를 부여하며 실격 처리했다.

황대현은 해당 종목에서 쌓은 모든 포인트가 몰수됐다. 박지원은 4위로 경기를 마쳤다.

여자 1000m 2차 레이스에선 김길리가 1분30초998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김길리는 마지막 곡선 주로까지 3위로 처져있으나 앞서 달리던 한느 드스멧(벨기에)과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즈월드(미국)가 몸싸움을 펼치는 사이 두 선수를 제치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여자축구 대표팀, 파리올림픽 예선 출전 중국으로 출국

폴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2024년 파리 올림픽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출전을 위해 23일 오후 중국으로 떠났다.

이번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B조 경기는 26일부터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리며 한국과 중국, 태국, 북한 4개 국가가 경쟁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0위 한국은 26일 태국

(46위), 29일 북한(랭킹 없음), 11월1일 중국(15위)을 차례로 상대한다.

조 1위 세 팀, 그리고 조 2위 3개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한 팀이 4강에 진출한다. 이후 4강 토너먼트에서도 승리해야 아시아에 배정된 올림픽 본선 티켓 2장 가운데 하나를 가져올 수 있다.

4강에 오를 경우 C조의 일본(8위) 또는 A조 호주(11위)와 맞

대결할 가능성이 크다. 최종 예선인 4강 토너먼트는 2024년 2월에 진행된다.

한국 여자축구는 아직 올림픽 본선에 출전한 적이 없다.

한국 여자축구 간판 지소연(수원FC)과 2007년생 신예 케이시 유진 페어 등 국가대표 선수들은 16일부터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NFC)에 소집돼 훈련했다.

8월 호주에서 열린 FIFA 여자 월드컵 멤버 가운데 박은선(서울시청)이 무릎, 최유리(버밍엄시티)는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하차했다.

/연합뉴스